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음악클럽 마을로~



주최 :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안내소-드림보트(DREAM BOAT) 후원 : 인천광역시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음악클럽 마을로~

● 머리말	05
● 부평, 한국대 중음 악의 뿌리다 (1-9차 강의계	
1차 – 배호 ·····	09
2차 - 미8 군클 럽 출신 가수들 ······	19
3차 - 50~70년대 팝가수들	24
4차 - 인천 부평 대 중음 악인	38
5차 - Michael Jackson······	64
6차 — ELVIS (King Of Rock 'N' Roll) ······	67
7차 - 제 3세계 음악	······75
8차 - beatles에서 bts·····	84
9차 – 부평평야, 부평문화권의 복원을 기대하며	92
● 결과보고서	97

머리말

한국대중음악을 이끌어 온 부평 신촌에 현재 유일하게 드럼보트 클럽 건물은 낡았다. 드럼보트 클럽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고, 후속 세대들은 별 관심이 없거나 알 수 있었다. 이른바 대중음악은 딴따라로 치부하는 인식과 미군들이 즐겼던 어둡게 음습한 문화라는 이유로 눈길을 주기 않았다. 그래서 부평지역에 사는 이른바 지식인그룹들과 부평 토박이들도 뭘 그렇게 중요하게나 싶어서 방치하는 세월 속에서 부평 신촌에 그 많던 클럽들은 사라지면서, 부평의 지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록들도 망각으로 흐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최근 부산하게 음악도시를 떠들고 있지만,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이다. 부평 행정이나 부평 문화를 애기하는 사람들도 특히 그렇다.

이런 요란하게 떠드는 류의 분류들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부평 신촌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 음악클럽 드럼보트를 보존하고 알리내는 것이 음악도시로 가는 첫 단추이다 문화 도시는 제안서 잘 써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평 문화에 가치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생계형으로 부평에 잠시 와서, 일하는 방식으로는 음악도시는커녕 문화도시 문턱에도 갈 수 없다.

이번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사업은 부평 대중음악의 상징 공간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드럼보트를 부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존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이 드림보트 건물 2층에서 시민들과 대중음악을 매개로 모였고, 드림보트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음악 공연을 2번 열었다. 그리고 드럼보트 음악클럽의 유래를 부평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표지판을 부착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추진했다. 그래도 갈 길이 멀다. 드림보트 건물이 개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부평의 한 시대를 증언하는 상징 건물로 오래 오래 남아 주길 바란다.

2019. 12. 부평대중음악둘레길 대표 이장열



드림보트 (DREAM BOAT) - 클럽의 전설이 되다

'드림보'부평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불렀다. 드림보트(DREAM BOAT)를 미군들이 부르던 것을 따라 부르다보니 드림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1960~1970년대 부평 신촌(부평3동)에 20여개가 넘는 미군전용 클럽이 있었으나 그 중 가장 규모가 컸고 매일매일 연주되는 드럼, 베이스기타, 기타, 보컬, 키보드 등으로 구성된 밴드의 라이브로 미군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클럽이다. 1970년 대 중반 부평미군기지(ASCOM)가 철수와 이전을 시작하며 대부분의 클럽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미군들로 성황을 이루었던 신촌 클럽 거리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드림보트만이 부일정육식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절 모습을 간직한 채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시절 명성을 말해주고 있다.

2019.11. 30(土)

지음: 정유천(인천밴드연합 대표)

그림: 조성정(작가)

만듦: 이장열(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도움: 문화체육관광부, (재)지역문화진흥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한국대중음악의 뿌리다

1-9차 자료



불멸의 가수 배호

본명은 배신웅(裵信雄), 호적상 이름은 배만금. 예명이 배호(裵湖)이다. 아버지는 광복군 출신의 배국민이고, 어머니는 김금순(金錦順)이다. 여동생은 배명신(裵明信)이다. 외가 쪽이 음악가 집안으로, 둘째 외삼촌 김광옥은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윤이상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였으며, 북경심포니교향악단 지휘자를 역임하였다. 셋째 외삼촌 김광수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작곡자로, 일본 메이지대학 문예과를 졸업하고, 바이올린 연주자로 초기 KBS 악단장을 지냈다. 넷째 외삼촌 김광빈은 피아노와 아코디언 연주자로, 초기 MBC 악단장을 지냈다.



탄생과 유년기

▶ 배호[1942~1971]는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에서 태어나 광복 직후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돌아와 1946년 4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81번지[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에서생활하였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서울 창신국민학교를 다녔다.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피란을 가기도 하였다. 1955년 서울 영창학교[성동중학교 전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부산으로 내려가 이모의 모자원에서 생활하면서 1956년 부산 삼성중학교2학년 1학기까지 마쳤다.



△ 부산 삼성중학교 2학년 배신옹, 명찰에는 한자로 喪信雄이라 적혀 있다. 서울로 상경하기 직전의 애띤 모습

배호와 부평

- ▶ 이후 음악을 하기 위해 혼자 서울로 올라와 외삼촌 김광빈에게 드 럼을 배웠다. 1958년부터 김광빈 악단에서 드럼을 연주하였고 1960년 부평 미군부대 에스캄(ASCOM) 미8군클럽 등에서 2년간 악단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하였다. 1963년 21세 때「굿바이」와「사랑의 화살」 두 곡을 녹음하고, 예명을 배호로 지었다.
- ▶ 1964년 낙원동 프린스(Prince) 카바레의 밴드 마스터로 뽑혀 배호와 그 악단이라는 밴드를 꾸려 드럼을 치며 노래하는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반야월 작사 김광빈 작곡의 「두메산골」을 타이틀로 한 1집 음반 『황금의 눈』을 내고 공식 가수로데뷔하였다.



△ 21세 청년이 된 배호의 모습, 예명을 배호(衰湖) 라 짓고 드러머 생활을 할 때이다. 이 무렵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무렵 모습들



외삼촌 김광빈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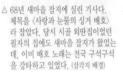


19살 무렵 드럼치는 배호

배호의 전성기가 시작 되다.

- ▶ 67년 배호는 전우-라규호 콤비의 새 노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과 '누가 울어'를 비롯한 13곡을 대 도스튜디오에서 취입한 뒤 뉴스타 레코드사를 통해 그의 첫 독집음 반을발표.
- ▶ '1966년 신장염에 걸려 가을 음악활동을 중단하고 청량리 단칸방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신진 작곡가 배상태를 만나 배호의 대표곡이자 최대 히트곡인 「돌아가는 삼각지」를 녹음하여 1967년 4월 음반을 발표하였고 각종 인기차트상위에 랭크되며 최고의 인기가수로 등극.







△ 작곡가 배상태와 배호의 만남은 운명적 이었다. 신장염으로 나락까지 떨어져 본 배호, 한때 강원도 탄광 촌까지 갔다 왔 던 배상태, 그들의 호흡이 맞아 떨어질 수 있었던 건 우연만은 아니었다.

배상태는 "돌아가는 삼각지"의 작곡가이다



▲ (한국일보〉 1968년 4월 28일자에 수록된 (온 공 착후의) 삼각지입체교차로 일대의 항공사진이 다 "3억원짜리 '도너트"라고 표현한 설명문이 송미롭다 삼각지 로타리에 긏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를 해매 도는 이 발길 떠나 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 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혜성처럼 나타나 전설로 사라진 가수 배호(聚湖 1942~1971)가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의 노랫말이다.이 노래는 1967년 3월 16일에 취임됐는데, 그 해 1월 27일에 막 착공한 삼각지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와 맞물려 순식간에 박 히트곡이 되었다.

비운의 스타가수는 채 서론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세 상을 떠났고, 노래의 유행과 더불어 유명세에 상승작

용을 일으켰던 '돌아가는' 입체교차로는 그 후 요절가수의 생애만큼이나 짧은 27년간의 세월 을 마감하고 1994년에 헐려져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맹 돌고 '삼각지'라는 지명은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의 교차역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1967년 발표한 배상태 작곡 이인선.배상태 작사한 '돌아가는삼각지'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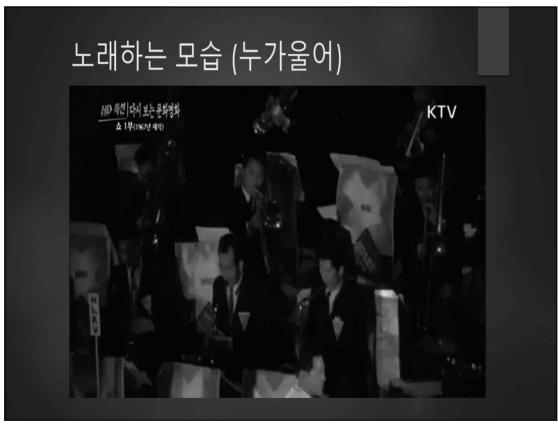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에 궂은비는 오는데 잃어버린그 사랑을 아쉬워 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짖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를 헤메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 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배호 최고의 해 68-70년

- ▶ 1968년 MBC 10대 가수상 수상 등 인기 정상과 더불어 몸이 회복되면서 왕성한 가수 활동 시작하여 히트곡「안녕」및 주옥같은 번안곡 등 생애 최고로 활발한 활동과 노래를 발표하면서 본인이 '내 생애 최고의 한 해'로 말할 정도로 전국적인인기를 차지하였고,
- ▶ 1969년에 TBC 남자 가수 대상, MBC 10대 가수상, KBS 가요 대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에는 MBC 10대 가수상, 서라벌 가요 대상 등 29개 부문을 수상하였다. 배호는 MBC TV 특집 여론 조사 가수 기여도 부분에서 1위로 선정되었고, 최초 가요 60년사 여론 조사에서 좋아하는 가수 1위로 선정되었으며, 『조선일보』 조사건국 이후 음악 전문가 여론 조사[음악성] 가수 50명 중 6위를 차지하였다.

배호의 노래들

▶ 1966년부터 1971년 세상을 뜰 때까지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하여 약 5년 동안 300여 곡을 발표하였다. 음반은 독집 20여 장을 포함해 약 70여 종 정도이다. 대표곡으로는 「돌아가는 삼각지」·「안개 낀 장충단 공원」·「누가 울어」·「안개 속으로 가 버린 사람」 ·「안녕」·「한목숨 다 바쳐」·「당신」·「비 내리는 명동」·「마지막 잎새」·「0시의 이별」 등이 있다.







별이 지다...

- ▶ 1969년에는 TBC, KBS, MBC 등 주요 가요 가수상을 휩쓸었지만 이후 무리한 활동으로 신장염이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 ▶ 1971년 7월 마지막 곡들인 「마지막 잎새」와 「0시의 이별」을 녹음하였다. 명동 코스모스백화점 공연 중에 각혈로 퇴장하고, 동년 10월 20일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진행 이종환] 출연 후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동년 10월 30일 세브란스병원 입원 이후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11월 7일 더 이상 가망이 없자 퇴원, 미아리 집으로 가던 중 의식 불명으로 자택에서 만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묘소

▶ 1971년 11월 11일 예총회관[현 세종문화회관] 광장에서 가수협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지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33-1번지 신세계공원묘원에 안장되었다. 무덤은 묘원 관리사 무실 입구에서 북향 좌측으로 20°도 가량 되는 지점이자 산 정상으로부터 두 번째 석축 아래 줄 노간주나무 근처이다. 배호의 묘 오른쪽에는 어머니 김금순의 묘가 있고, 왼쪽에는 여동생 배명신의 묘가 있다. 사각형 묘비에 「돌아가는 삼각지」의 가사가 새겨져 있다



2011.11.7. 40주기 추모식 - 신세계공원 묘원



경기도 장흥에 있는 배호의 묘.

추모와 노래비

- ▶ 2000년 11월 배호의 팬들과 용산구민의 민원으로 용산구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21번지~221번지 삼각지로터리 이면 도로를 배호길로 선정하였다. 대중 가수의 이름이 도로명 이 된 것은 배호길이 처음이다. 2001년 11월 13일에는 삼각지로 터리의 녹지에 「돌아가는 삼각지」의 가사를 새긴 배호 노래비를 세웠다.
- ▶ 2002년 4월 21일 배호를 기념하는 전국모임에서 배호 탄생 60 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묘에 두메산골 노래비를 건립하였다. 이 모임은 또 2003년 6월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에 마지 막 잎새 노래비를, 7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아 들바위공원에 파도 노래비를, 2011년 11월에는 인천 연안부두 에「비 내리는 인천항 부두」가사를 새긴 노래비와 흉상을 세웠 다. 2003년 10월 20일 옥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으며, 2003년부 터 배호 가요제가 열리고 있다. 2005년 5월 20일 소담출판사에 서『배호평전』이 출간되었다



비내리는 인천항부두 노래비

- ▶ 보슬비 내리는 인천항 부두
- 오고가는 연락선에 사랑도 운다
- ▶ 기맥힌 사연만 남은 항구야
- ▶ 조수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아
- 아- 인천항 부두에 비만 내린다
- ▶ 이별도 서러운 인천항 부두
- ▶ 떠나가는 뱃머리에 사랑도 운다
- ▶ 갈매기 짝잃은 인천항구야
- ▶ 고동처럼 울다가 가는 사람이
- ▶ 아- 인천항 부두에 비만 내린다







2차 강의 - 미8군클럽 출신 가수들

미8군무대 그리고 미8군쇼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부대는 미8군(Eighth United States Army는 야전군이며 지상군) 산하 부대로서 이러한 부대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클럽에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미8군무대 연예인이라하고 이런 행위를 미8군쇼라고 했다. 미8군 무대는 당시 음악인들에게는 최고의 무대였다. 미8군클럽은 분기별로 남명동에 위치한 USIS(미 공보원.미 문화원)라는 곳에서 공개오디션을 거쳐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오디션에서 부여받은 클라스(등급)은 음악인의 가치이며 거기에 근거해 일정한 보수를 보장받았다.

미8군 무대의 효시는 1945년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이 주둔한 곳에 째즈 밴드가 동원되어 원시적인 외화획득의 효시가 되었다"는 평론가 황문평의 회고라든지, "해방되던 해 반도호텔에서 지까따비(주: 일본 버선 모양의 노동자용 작업화)에 모닝코트를 입고 미 항공단 환영 연주를 했던 김호길은 한국전쟁 후에는 대구에 머물면서 미군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동촌 비행장에 나가 연주를 했다"(<동아일보>, 1973년 4월 5일치)는 기사는 참고할 만하다.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시기는 휴전 이후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게 된 일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 있던 미8군 사령부가 1955년 서울로 이전한 사실은 시사적이다. 주한미군의 규모가 커지자 이들에 대한 공연 수요도 늘어났다. 미군에서 직접 미군위문협회(USO) 공연단이 방문해 위문공연을 벌이는 일이계속되었는데 공연단에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냇 킹 콜 등 당대의 대스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일상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미군 위문공연을 위해선 한국인으로 구성된 위문공연단이 필요 했다.

1957년경 미8군 쇼 무대가 활성화되면서 용역업체들이 앞다투어 등장했다. 이전까진 연주자 개인이나 팀이 개별적으로 클럽과 교섭하여 쇼를 벌였다면, 이제 공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셈이었다. 이때 생긴 화양, 유니버셜, 삼진, 공영 등의 용역업체들은 산하에 쇼 단체들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는 미군 당국이 쇼에 대한 심사(오디션)에 엄격했기 때문이다. 각 쇼단은 보통 6개월마다, 미국에서 직접 파견된 음악전문가들이 심사하는 엄격한 오디션

절차를 거쳐 더블 A, 싱글 A.B.C하는 식으로 등급이 매겨졌는데 소위 말하는 빽이나 명성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았다.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뮤지션들은 미8군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신 레퍼토리를 입수해 끊임없이 연습하여야 했다. 이는 곧 먹고사는 문제와도 직결되 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 미군 무대가 한창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미군 클럽은 264곳에 이르렀고 당시 연간 수출이 100만달러에 못미치던 시기에 미8군 미군 쇼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이 벋어들인 돈은 연간 120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대단한 규모임에 짐작케 한다.

미8군 쇼 무대에서 단련한 음악인들은 1960년대부터 이른바 일반 무대(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무대)에 진출하며 우리나라 가요계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한국 대중음악은 기존의 가요(트로트) 스타일이 아닌 서구화된(미국화?) 팝스타일의 음악으로 급속하게 바뀌게 된다. 당시 미8군 출신 음악인으로 일반무대로 진출한 뮤지션들은 이봉조, 김대환, 김희갑, 신중현, 김홍탁, 한명숙, 최희준, 현미, 패티김, 윤복희, 펼시스터즈,위키리.,박형준,유주용,이금희,김상국,임희숙, 블루벨즈,길옥윤,옥희,장미화,서수남.조용필,윤향기,박춘석,손시향등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 정도이다.

한명숙

1961년도에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가 빅히트를 치며 노랸샤츠를 입는게 유행이 였으며 택시 운전기사들 사이 에서도 유행이 번져 노란셔츠를 입고 운전하는 운전사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최희준

1961년도에 '내사랑 주리안'과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로 인기를 구가했으며 한국 의 냇킹콜이란 별명을 얻었다.

현미

1962년도에 허스키한 목소리로 '밤안개'를 불러 빅히트를 쳤으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그의 노래는 작고한 색소폰연주자며 작곡가인 이봉조가 만든 음악들이다.

신중현

당시 화양 에이젼시에 속해 있었는데, 화양에서는 신중현과 동료들을 위해「클럽데 이트」라는 패키지쇼를 만들어줄 정도로 귀한 몸이었다. 그 공연은 전국 미8군 무대를 돌며 올려졌고 매우 인기가 높았다. 신중현은 미8군의 인기를 바탕으로 '미도파살롱', '은성살롱', '닐바나'등에서도 활동했다. 신중현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미군 주둔군들이 지방에서 트럭을 타고 신중현의 기타를 들으러 왔으며 AKFN이나 미8군 내에서 특집으로 다뤄질 정도로 대단했다.

한참 활동하던 시기인 62년경 월 급여가 2,4000원(63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5천990원-통계청 자료)이었다 한다.

이금희

1959년 데뷔해 리마 김(金), 로라 성(成), 모니카 유(劉)등과 함께 미8군 무대와 대학축제, 다운타운의 클럽을 통해 외국 유행음악을 대중들에게 전달해준 여성 팝메신저였다.

허스키보컬로 화끈한 율동을 곁들여 들려준 그녀의 흥겨운 곡들은 부동자세로 노 래하던 정적인 가요계에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이금희는 '미스 다이나마이트'로 불리며 댄스여왕으로 군림했던 최초의 댄스가수였다. 대표곡으로 '키다리 미스터 김'이 있다.

이금희는 "당시 미8군 여가수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나도 큰 거울을 놓고 연습을 하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마르는 약을 많이 먹어 노래하다 쓰러지기도 했다"며 "많으면 10여곡 이상의 앵콜을 요청받아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해 목이 쉬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을 이뤄 무대화장 속 눈썹이 얼굴 사방에 흩어지기가 일쑤였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한다.

또한 미8군 가수였던 막내 동생 이금미(본명 이대란)와 '이씨스터즈'를 결성, TV 방송에도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유주용

1940년 7월 3일 황해도 연백에서 독일에서 공부한 공학박사 유재성씨와 독일 무관계의 귀족인어머니 브리히테 폰 보데(Brigitte Von Bode)의 3남매중 막내로 태어 났다.

대학시절엔 민들래 라는 악단에 들어가 미8군무대에 진출 햇으며 한참 인기를 모을 무렵에는 일본,동남아 등지로 활동 영역을 넓혔으며 최희준.위 키리.박형준과 함께 '포.클로버스'라는 사중창단을 만들어 레코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유주용은 60년대말 윤복희와 결혼하게 된다.

대표적인 노래는 '부모'가 있다.

윤복희

8살에 미8군 무대를 시작으로하여 전세계를 돌며 코리언 키튼즈라는 이름으로 숱한 무대활동을 하며 영국BBC의 투나잇쇼,서독 대통령 선거특별쇼 초청되었고 마침내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자리잡고 활동하다가 CBS-TV스페셜쇼(밥 호프 크리스마스 특집)에 초청되기까지 했다.

김시쓰터즈

최초의 여성보컬그룹으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의 7남매중

영자, 숙자, 애자 세자매로 첫무대는 1951년 부산행 미군 열차에서 이다. 당시 미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미국 여성보컬그룹 '앤드루 씨스터즈'의 히트곡들을 부르며 미군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트럼펫, 색소폰, 밴조 등 악기까지 직접 다뤄 미군들을 열광시켰으며 마침내 명성이 미국에 까지 알려져 밥 호프의 위문단을 따라왔던 매니저 톰 볼의 주선으로 1958년 팝의 본고장인 미국 무대에 진출해 그룹 코스터스의 히트곡 'Charlie brown'을 리메이크시켜 국내 가수로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기록을 수립했다.

송민도

김시스터즈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에게는 '나 하나의 사랑'으로 알려진 송민도가 패티 페이지의 'I went to your wedding' 을 번안한 '눈물의 왈츠'를 불렀는데 6.25이후 최초의 팝송 번안곡이다.

패티김

평소 패티 페이지를 좋아해 이름을 패티로 정했으며 패티 김이 미8군 무대에서 주로 불렀던 노래는 'Padre' 와 'Till'를 이었다.

일반무대로 진출한 그는 그후 대형가수로 길옥윤씨의 곡을 받아 노래해 많은 빅히 트곡을 탄생 시켰다.

엄토미(모니카유 부군)

바이올린, 색소폰, 클라리넷 연주자로 1950년대 초에는 '엄토미 악단'을 창단해 이끌었다. 이후 재즈 음악가로서 길옥윤 박춘석 이봉조 김희갑 등의 문하생을 발굴하였다.

에필로그

한국전쟁은 미국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휴전이후 한국에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게 되면서 소위 GI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주한미군방송(AFKN)은 미국의 문화를 한국에 직접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였다. 주한미군방송은 세계문화의 변방이였던 한국사회에 당시 최첨단의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유입하는 경로가 되었다.

미8군 무대는 미군들이 좋아하는 본토 가수들을 한국 가수들이 철저히 복제해야 하는 무대였다. 최희준은 냇킹 콜을 복사해야 했고 패티킴은 패티 페이지를, 위키리는 바비 달린을, 유주용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박형준은 페리 코모를, 김상국은 루이 암스트롱을 그리고 블루벨스는 에임스 브라더스를 복사 하여야 했다.

이렇게 서구식음악 복제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이후 복제와 자기발전을 반복하며 한류의 주류인 케이팝이 되었고 지금의 BTS를 만들었다.



50년대 이후 미국 본토의 팝가수와 음악들은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미 8군 클럽 가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군들은 당시 여러도시에 주둔하였지만 미국에 있을때 듣던 음악을 들으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타국에서의 고단함을 잊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8군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하기 보다는 철저히 미국의 어느 가수가 되어야 했다.

미8군 무대는 미군들이 좋아하는 본토 가수들을 한국 가수들이 철저히 복제해야 하는 무대였다.

최희준은 냇킹 콜을, 패티킴은 패티 페이지를, 위키리는 바비 달린을, 유 주용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박형준은 페리 코모를, 김상국은 루이 암스트 롱을 그리고 블루벨스는 에임스 브라더스를 복사 하여야 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등 서구음악 복제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이후 진화를 거듭하여 k-pop으로 까지 발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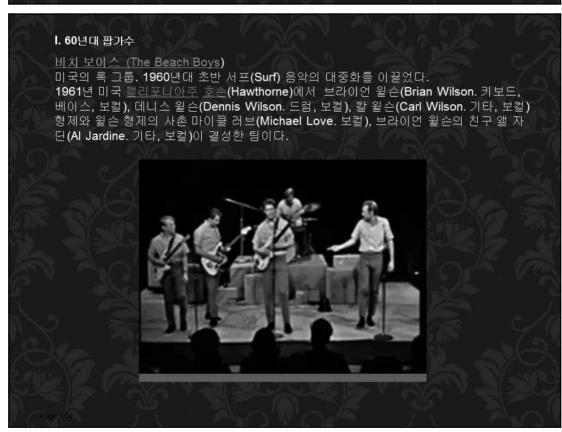
I. 50년대 팝가수 클리프리처드(Cliff Richard 인도) 1940년 10월 14일, 1969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 가진 내한 공연은 여학생들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당시 기성세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며 논란을 일으켰다. 1995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I. 50년대 팝가수 <u>도리스 데이</u> (Doris Day 미국) 1922년 4월 3일-2019년 5월 13일 1951년 부터 가수겸 배우로 활동하였으며 대표적인 수상 경력으로 <u>그래미 평생공로상</u>, 가수회 전설상이 있으며 1960년 <u>아카데미 여우주연상</u>에 후보 지명되었으며 1989년 장 편영화에 대한 평생공로를 따져 세실 B. 데밀상를 받았다. 2004년 대통령 <u>조지 W. 부시에게 자유훈장을</u> 수훈했으며 2011년 <u>로스앤젤레스 영화평론가 협회에서 경력공로상을</u> 수상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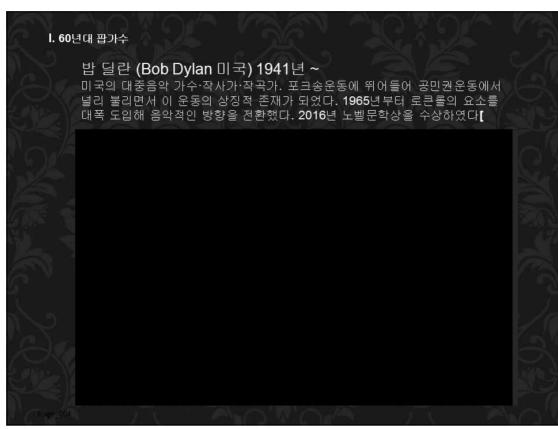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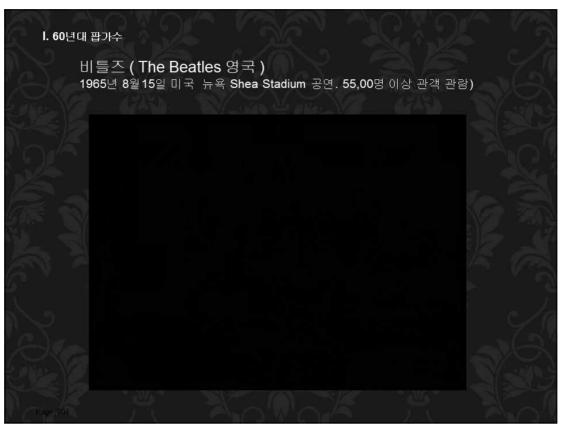








I. 60년대 팝가수 비틀즈 (The Beatles 영국) 1959 ~ 1970.4.10. 비틀즈는 존레논(John W. Lennon 1940.10.9~1980.12.8), 폴 매카트니(James Paul McCartney 1942.6.18~),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943.2.2~2001.11.29), 링고 스타(Ringo Starr 본명 Richard Starkey 1940.7.7~) 등 네 명의 영국 리버풀 출신 청년이 모여 결정한 본명으로 전세계에 6억장의 음반을 판매했다. 비틀즈는 1964년 에드설리반 쇼에 출연하였으며 이들 두고 영국의 미국 참공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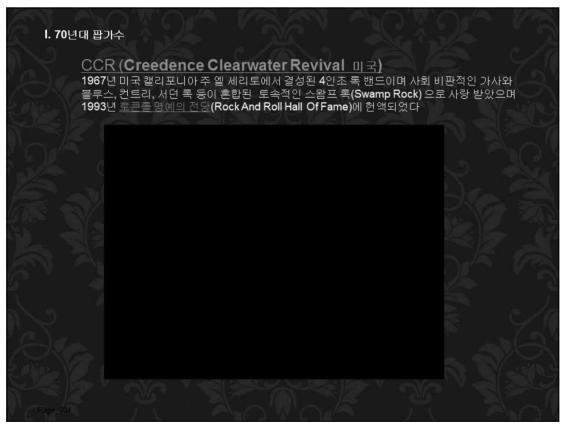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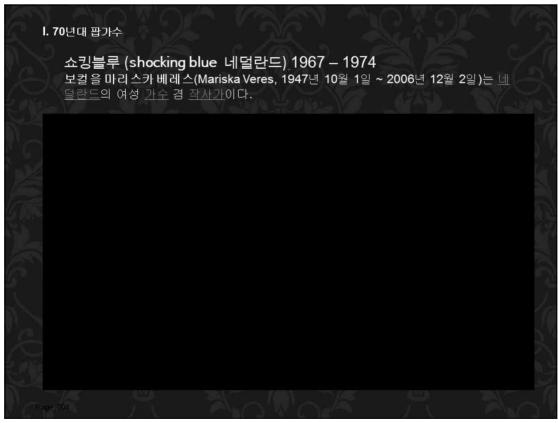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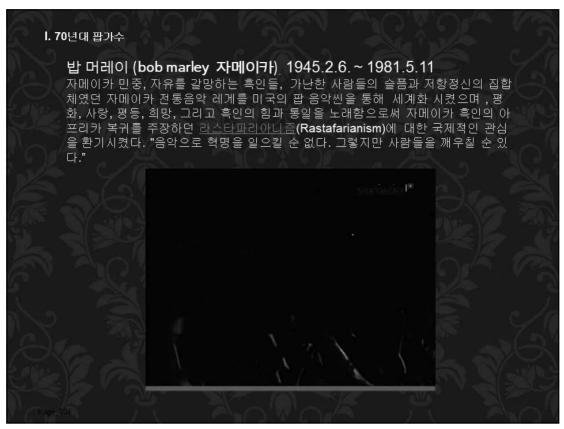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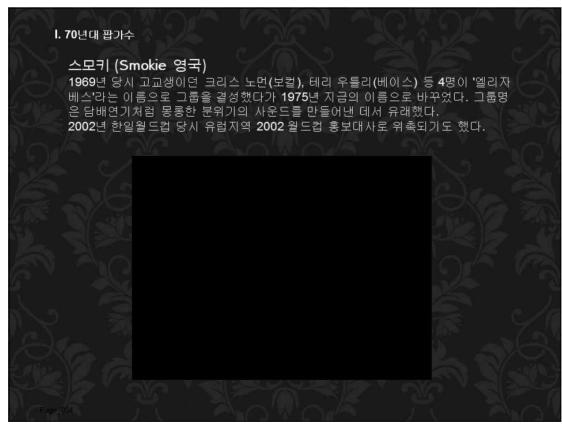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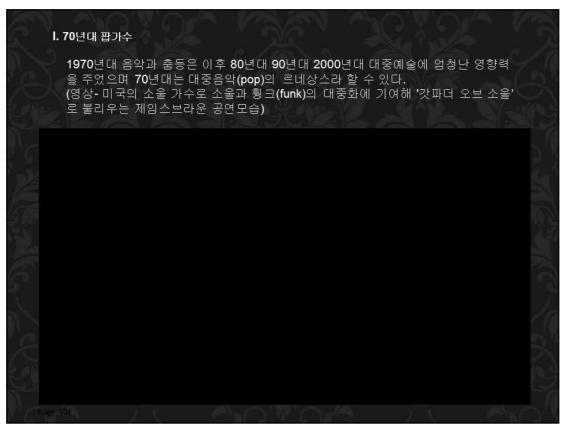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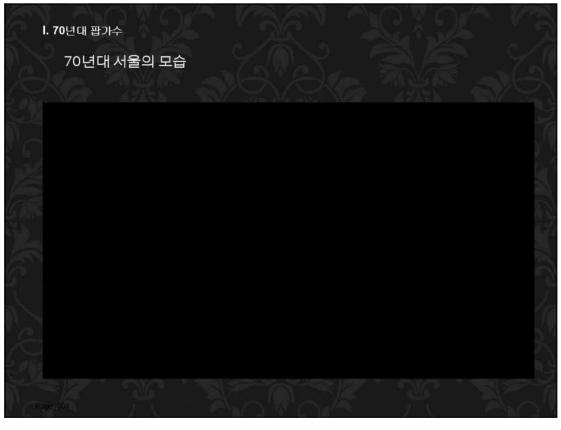














4차 강의 - 인천 부평 대중음악인

윤일로 - 35년 인천 숭의동 태생으로 '기타부기''항구의 사랑'등 히트곡을 발표한 가수로 50-60년대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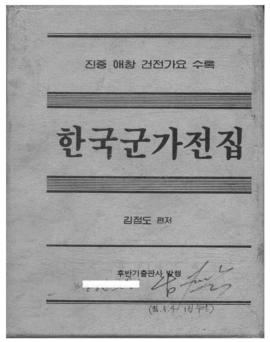


박경원 -31년 인천 신포동 태생으로'이별의 인천항''만리포 사랑'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점도 - 35년 대구 출신이지만 인천에서 활동하며 '내고향 인천항'' 월미도를 아시나요''인천국제공항'등을 작곡 하였으며 한국가요사를 연구 하였다.





박상규 - 42년 인천태생으로 김준.차도균과 다이나믹포로 활동 하였으며 솔로로 독립하여 '조약돌'등 히트곡을 내며 70년대 10대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종임 - 60년대 인천출신 여성들로 구성된 레이디버즈로 활동하였으며 70년 대 와일드캣츠라는 밴드로 '마음약해서'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동영상

위키리 -36년 경남 진주 태생이지만 인천창영초등학교 출신으로 '저녁한때의 목장풍경''눈물을 감추고'등 히트곡이 있으며 1966년 10대 가수에도 선정 되었 다.



송창식 - 47년 중구 답동 태생으로 60-70년대 윤형주와 트윈폴리오를 결성하여 당시 젊은이들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솔로가수로 활동하면서 '한번쯤''담배가게 아가씨'등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동영상

김홍탁 - 44년 인천태생으로 '해변으로 가요'로 유명한 키보이스를 거쳐 히파이브 히식스의 기타리스트로 활동 하였으며 현재는 후학 양성을 위해 서울재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동영상



장미화 -서울태생이지만 인천인화여고를 나왔으며 '안녕하세요''어떻게 말할까' 등 히트로 인기를 얻었다. *.동영상



김명길 - 47년 인천 화수동 태생으로 조승우가 나온 영화 '고고70'의 실제 모델인 밴드 데블스의 리더로 60-70년대 밴드음악의 한 획을 그었다. *. 동영상

김대환 -46년 동산중학교를 나왔으며 미8군무대에서 신중현과 애드포를 결성 하여 활동 하였으며 조용필.이남이.최이철과 김트리오를 결성하여 활동, 한국 그룹사운드협회 초대 회장을 엮임했으며 프리음악의 대가.





강태환 - 44년 인천 태생으로 색소폰 연주자로 우리나라의 프리재즈 뮤지션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강태환트리오로 활동했다.



서성원- 동산중학교 밴드부 출신으로 '나는 못난이''도 만나요'등으로 인기를 얻은 딕페밀리 리더이다.

김정호- 52년 광주 태생이지만 1980년 인천결핵요양원 (현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며'고독한 여인의 미소는 슬퍼'등의 명곡을 만들었다.

산이슬 -박경애는 54년 인천송현동 태생으로 인천여상 출신 주정이와 함께 듀엣으로 '이사가던날''밤비야'등의 곡들을 발표 하였다.



블랙신드롬 - 인천출신 김재만이 결성한 락밴드.

티삼스 -인천공전 대학밴드로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히트곡이 있다.

사하라 - 인천출신 메탈밴드로 9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헤비 메탈밴드.

채제민 - 밴드 부할의 드러머로 현재 계양구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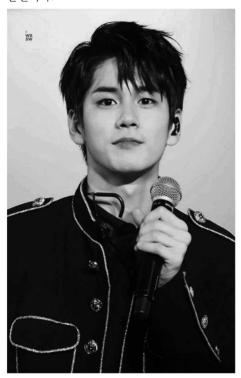
조유진 - '낭만고양이' '오리날다'로 알려진 밴드 체리필터의 보컬로 서인천고 출신이다.



허 각 - 85년 인천 주안북초등학교 인천남중 출신으로 2010년 Mnet 《슈퍼스타K2》에 참가해 우승을 하며 데뷔하였다.



용성우- 1995년 남동구 구월동출신으로 구월중학교 출신 아이돌 그룹 워너원 출신이다.



이수만 - 가수겸 대형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한때 80년대 중반인천 월미도에서 오랫동안 '헤밍웨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기획자의 꿈을키웠다. H.O.T., S.F.S, 신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BoA, 동방신기, 천상지희 The Grace,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EXO, 레드벨벳, NCT 등의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하였다.

소리새 - 인선출신의 김광석과 황영익이 만든 듀엣으로 '그대 그리고 나'의 히트곡이 있다.

한정선 - 인천출신으로 솔개트리오를 결성하여 '아직도 못다한사랑' 연안부두'등을 작곡 하였다.

신성철 - 들무새와 소리새에 있었으며 강화도에서 '마리의 숲'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유명 가수들의 기획공연을 하고 있다.

김광진 -인천 동구 출신으로 송도중학교 제물포고졸업. 그룹 클래식을 결성하여 '마법의 성'이라는 히트곡을 발표 하였다.



최용민- 인천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노 연주자이며 가수.

효 연 - 인천태생으로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멤버이다.



김태화 - 인천송도고 출신으로 그룹 '라스트찬스'의 보컬로 '안녕''얘기할 수 없어요'등의 히트곡을 발표 하였으며 가수 정훈희의 남편으로 유명하다.

이 용 - 축현초등학교 출신으로 '잊혀진계절' 바람이려오'등의 히트곡 가수이다.

이선희 -인천전문대 출신으로 강변가요제 '4막5장'으로 출전하여 'J에게'로 대상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가수가 되었다.

박기영 -인천 서구 출신으로 '시작''마지막 사랑'등의 히트곡이 있으며 '나는 가수다'를 통해 유명해 졌다.



벤 - 동구 화수동 출신으로 tvN의 퍼펙트싱어 VS에 출연해 이선희의 '인연'을 불러 역대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부터 유명해졌다



방실이 -강화군 출신으로 여성트리오 '서울트시스터즈'를 결성하여 '첫차'라는 히트곡을 발표 하였다.

효 린 - 미추홀구 태생 인화여고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씨스타 멤버 이다.



민호 - 인천 남구 태생으로 연성초, 연성중학교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샤이니 멤버이다.



어반자카파 - 3명의 멤버중 권순일.박용인은 인천출신으로 2012년 9월 '나는 가수다2' 새가수 초대전에 참가하면서 대중적으로도 큰 인지도를 확보하였다



정성화 - 인천 대건고 출신으로 SBS 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였다. 2001년부터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과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연기하며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유명한 뮤지컬배우 이다.



행주(리듬파워) - 인천 동인천중학교 출신으로 쇼미더머니 시즌6 우승자이다.



정 아 - 옹진군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심수봉 - 인화여고 졸업 '사랑밖엔 난몰라''그때 그사람'등의 히트곡이 있다.

김은정 - 인천외고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쥬얼리 멤버.



윤희정 - 인성여고 졸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재즈 싱어.



씨 잼 - 제주도 태생 . 인천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가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중퇴후 힙합가수로 쇼미더머니5 준우승자



김현성 -제물포고 40회 졸업으로 1997년 강변가요제에서 '스톱'을 불러 금상을 받았다. (참고로 지상렬, 김구라, 염경환은 33회다)



부평출신

구창모 -54년생. 부평 동초등학교 홍익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대학시절 블랙테트라멤버 이후 송골매를 거쳐 '희나리'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히트곡을 발표 하였다.

*.동영상

백영규 -52년 양평에서 태어났지만 부평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순이생각''잊지는 말아야지'등의 히트곡을 발표 하였다.



최성수 - 서울출생 부평 서초등학교 출신으로 '동행''남남''풀잎사랑'등 히트곡이 있다.

*.동영상

유심초 -부평 출신으로 '사랑이여 '어디서 무엇이되어 만나리' 등의 히트곡을 발표 하였다.

바와이 - 부평출신 힙합가수로 2017년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상 수상.



이철호 - 52년생으로 현 '사랑과평화' 보컬로 인천 창영초등학교를 나왔으며 현재 30년째 부평에서 거주하고 있다.



 $m {\bf V}$ 이 - 부평출신 힙합가수로 제30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베스트 R&B 힙합상을 수상 하였다.



디 아 - 1992년 부평 태생. 산곡초등학교 출신 가수로 2009년 싱글 앨범 [Ocarat]을 발표 하였다.



배 호 - 광복군이였던 배국민의 맏아들로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났다. 63년도에 부평미군부대 에스캄 미군클럽에서 드러머로 그의 음악생활은 시작 되었으며 이후 가수로 데뷔하여 주옥같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 하였다.

안기승 -57년 서울태생이지만 부평에스캄 8군클럽에 부킹된 아버지(안명훈)를 따라 삼릉으로 이사와 어린시절부터 9세부터 미8군무내에서 드러머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드러머로 인정받고 있다.





남지현 - 부평출신으로 계산여중 출신 아이돌그룹 포미닛의 멤버이다.



민 아 - 북인천여중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멤버.



려 욱 - 부평구 산곡동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초 아 - 부평출신으로 산곡남초,가정여중 졸업. 아이돌그룹 AOA멤버 .



린 지 - 부평출신으로 부원초 부원여중 졸업. 아이돌그룹 피에스타 멤버.



은 서 - 부평출신으로 부천일신중 졸업.아이돌그룹 우주소녀 멤버.



슬리피 - 부평구 부개동 출신으로 힙합듀오 언터쳐블 멤버이다. 제25회 대한민국 문화 연예대상 K-POP 가수상 제7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대중문화대상 K-힙합부문



소 향 - 광주광역시 태생 인명여고 출신으로 '나는가수다2'와'불후의명곡'에

출연하여 유명해졌으며 CCM가수로도 활동중.



이승재 - 부평 산곡동 출신으로 '눈동자''아득히 먼곳'등의 히트곡이 있으며 현재는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중이다.

*.동영상

이봉조 - '안개' '무인도'등을 작곡했으며 유명색소폰 연주자로 50년대 부평에 거주하며 에스캄 미8군클럽에서 음악활동 하였다.

차차차오남매 - 부평출신으로 60년대 미8군클럽과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 회관)등 전국을 누비며 활동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밴드.

주다인 - 주주밴드의 여성보컬로 인천 부광여고 출신이다.

신 지 - 코요테에서 활동 중이며 부개여교 출신이다.

*.동영상

김재덕 - 신촌출신 기타리스트로 '서울훼밀리' 리더

*.동영상

남진우 - 부평서초등학교 출신, 색소폰 연주자로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방한시 리셉션장에서 색소폰을 연주 하였다.



정유천 - 부평 산곡초등학교를 나왔으며 현재 부평올스타빅밴드 단장과 인천밴드연합 대표로 90년대'하나뿐인지구''빨간사과'이 담긴 1집.2집 앨범을 발매 하였으며 부평을 노래한 '신촌''에스캄시티나잇'등을 발표 하였다.



Michael Jackson (King of Pop)



본명

마이클 조지프 잭슨 (Michael Joseph Jackson)

축생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 주 개리

사망

2009년 6월 25일 (향년 5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홈비 힐스

국적 -미국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무용가, 배우, 자선가, 사업가

신체 - 175cm, 62kg

종교 - 여호와의 증인 → 불명

데뷔 - 1969년 잭슨 파이브 1집

활동연도 - 1964년 ~ 2009년

마이클 잭슨은 1958년 8월 29일 미국 중부 지방인 인디애나주 개리(Gary)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 잭슨은 제철소의 크레인 기사였고 어머니 캐서린은 전업 주부였습니다.부모들은 음악을 좋아해 아버지는 악단에서 기타 연주를했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고 노래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공부하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마이클은 10남매 중 여덟 번째였습니다. 마이클 바로 위 형은 한 살 때 죽어 9남매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 조 잭슨은 매우 엄격해 자녀들이 너무 많은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걸 금했고, 특히 불량배들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단속했 습니다.잭슨 가족의 8번째 자식인 마이클은 1964년 형제인 재키 잭슨, 티토 잭슨, 저메인 잭슨, 그리고 말론 잭슨과 함께 팀의 막내로 잭슨 파이브로 데뷔 했다. 잭슨5는 1968년에 모타운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첫 음반 '다이애나 로스, 잭슨5를 소개하다 (Diana Ross Presents the Jackson 5)'를 내놓았습니다. 이 음반은 '리듬 앤드 블루스' 부문에서는 인기 순위 1위, 팝 음반 분야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특히 마이클이 리드싱어로 노래를 부른 'l Want You Back'은 '빌보드 인기 100선'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잭슨5는 그 뒤로도 계속 'ABC', 'I'll Be There', 'The Love You Save' 등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히트곡들을 내놓았습니다.1971년 모타 운 레코드에서 솔로 활동을 시작한 잭슨은 1980년대 초 대중음악에서 주목받 은 인물이 되었다. 그의 1982년 앨범 《Thriller》의 수록곡 〈Beat It〉, 〈Billie Jean〉, 〈Thriller〉등의 뮤직 비디오는 인종적 장벽을 깨고, 매체의 예술 형식 과 홍보 수단에 혁명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디오의 인기는 TV 채널 MTV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보는 음악 '의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을 융한한 마이클의 앨범 사운드는 흑인=소울/알앤비, 백인=록/팝이라는 공식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에서도 찬사를 받는다. 잭슨의 1987년 음반 《Bad》는 수록곡인 (I Just Can't Stop Loving You), (Bad), (The Way You Make Me Feel), 〈Man in the Mirror〉, 〈Dirty Diana〉를 모두 미국 빌보드 핫 100 싱글의 정 상에 올려, 최다 1위곡을 배출시킨 음반이라는 기록을 세운다. 그는 1990년대 동안,〈Black or White〉와 〈Scream〉과 같은 영상으로 혁신을 계속했고, 1993 년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역사적인 무대로 자리매김 하였다. 투어를 도는 솔 로 가수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무대와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잭슨은 로봇과 문 워크와 같은 수많은 복잡한 춤 기술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그의 독특한 사 운드와 스타일은 다양한 음악 장르의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이라는 기네스북 기록과 함께 잭슨의 정규 앨범《Thriller》는 66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총 31개의 기네스북 기록을 남겼으며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꾸준히 빌보드 TOP 10 안에 든 유일한 가수로 그의 솔로 경력으로는 총 13개의 빌보드 1위곡을 남겼으며 밴드 시절까지 합치면 17개의 빌보드 1위곡을 남겼다. 또한 잭슨은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두 번 헌액된 몇 안되는 음악가 중 한 명이며,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13개의 상과 35세의 나이로 살아있는 전설 상을 수상했다. 작사/작곡 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작사/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춤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팝과 록을 겸비하는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립 무용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또한 인종차별을 부숴 유색인들의 인권신장을 이뤘다는 공로로 상을 받았다. 잭슨의음악은 시대를 앞서간 사운드로 구성되어 엔지니어들은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6차 강의 - ELVIS (King Of Rock 'N' Roll)

ELVIS (King Of Rock 'N' Roll)

출생일: 1935년 01월 08일, 미국 투펠로

사망일: 1977년 08월 16일

직업: 가수/영화배우

데뷔: 1956년

영화: '러브 미 텐더'

경력: 1998컨트리 뮤직 명예의 전당 헌액/1974가스펠 뮤직 명예의 전당 헌액

수상 : 1974제17회 그래미 어워드 가스펠부문 최우수상/1972제15회 그래미 어워

드 가스펠부문 최우수상/1967제10회 그래미 어워드 가스펠부문 최우수상

1935년 1월 8일 미시시피 주 남부 작은 마을 투펠로에 있는 아버지가 나무로 지은 방 두 개짜리 작은 집에서 엘비스 아론 프레슬리(Elvis Aron Presley)가 태어납니다. 멤피스의 그레이스랜드는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엘비스 에런 프레슬리(영어: Elvis Aaron Presley,[a] 1935년 1월 8일 ~ 1977년 8월 16일)는 미국의 가수, 작곡가, 음악가, 배우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표징으로 평가되는 그는, 이따금 "로큰롤의 제왕", 또는 단순히 "왕"으로 세칭된다.

미시시피 주 투펄로 출신 프레슬리는 13살 때 가족과 테네시 주 멤피스로 이사했다. 1954년 이곳에서 음악 경력을 시작, 프로듀서 샘 필립스와 선 레코드에서 녹음을 진행한다. 기타리스트 스코티 무어, 베이시스트 빌 블랙과 작반하여 로커빌리, 업템포, 백비트 추동의 컨트리 음악과 리듬 앤 블루스 융합을 선도했다. 1955년 매니저 톰 파커 대령의 주선으로 RCA 빅터와 계약을 성립한다. 1956년 1월미국에서 첫 RCA 싱글〈Heartbreak Hotel〉이 1위를 달성했다. 일련의 성공적인전국 방송 출연 및 차트 정상 레코드를 통해 그는, 신흥 대중음악 로큰롤의 중진으로 부상했다. 인종 관계가 변모되던 당시 정력적인 노래 해석 및 성적 도발적인공연 방식이 인종 장벽을 가로지르는 몹시 특이한 영향력의 배합과 더불어 그에게공전의 유명세를 안겨주었으되, 동시에 그를 논란의 인물로 만들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로, 그의 음악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로큰롤의 제왕이라는 평을 갖고 있다. 그는 비주류 장르였던 로큰롤을 가요계 주류로 끌어올린 최초의 록 아이콘으로 흑인음 악과 백인음악을 주 장르로 불렀으며, 로큰롤 이외에도 가스펠, 록 음악, 펑크 (Funk), 발라드, 팝 등의 장르에서 모두 정상급에 올랐다.

그는 대중음악사 영향력있고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4]이자 20세기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5]있는 인물 중의 한 명이다. 또 엘비스는 대중음악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끈 시대적 아이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최초이자 최고의록스타, 대중음악사 불멸의 아이콘. 그리고 20세기 대중문화계를 대표하는 인물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로도 평가된다. 이는 몇몇 음악책에는 그가 성공 후 이야기한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릴 레코드를 한장 발매하려고 레코드 회사를 찾았다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트럭 기사를 정설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엘비스는 1950년대 초반부터 기타를 배우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음악적 교류를 하던 사람들이 브루넷츠 형제(이들은 후에 조니 브루넷 트리오로 이어진다)였고, 사실 엘비스는 여러가지 밴드나 가수 경연대회에 수차례 응모했다 떨어진 전적이 있으며, 새 멤버를 구하는 기성 밴드들의 오디션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일도 비일비재했다. 즉, 밑바닥부터 기어올라간 자수성가형은 사실이나 트럭 운전수 일을 하며 꾸준히 오디션에 참가했으며 어머니를 위해 제작한 판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하다못해 자작판이라도 만들어 선물하자는 결심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병역의무를 서독 주둔 미합중국 육군에서 했는데, 이 때 독일 민요 Muss i denn, muss i denn zum Städtele hinaus(노래는 즐겁다)를 '준Wooden Heart(목석같은 마음)' 라는 곡으로 개사해 부른 게 유명하다. 이 곡은 엘비스가 출연한 영화 G.I.블루스에 삽입되었다.

공식적인 데뷔 후 하반신을 흥겹게 흔드는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춤과, 흑인들의 전유물로 취급되던 락앤롤을 선보여 미국을 뒤흔들었고, 보수적인 세대들에게 혐오를 받았으나[6] 젊은 층에게 그 인기는 대단했다.

70년대에도 엘비스의 인기는 여전했으며, 1973년 하와이 콘서트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으로 생중계된 공연이 되기도 하였다.준#

잘 생긴 얼굴로 영화에도 많이 나왔다. 공연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외해도 영화

만 30여편이나 된다.[7]히트곡을 영화화했거나 영화에 나온 노래가 히트하는 식인 것이 많아 배우로서의 평가는 좋지 않다. 그래도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그가 나온다 하면 소녀 팬들이 몰려 가서 계속 영화는 찍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엘비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중이 늘기 시작했고, 약물 치료 등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1977년 1월 그의 몸무게는 100킬로 그램이 넘었을 정도였다고 한다.[8]결국 1977년 8월 16일, 엘비스는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자택의 욕조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향년 4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일설에 의하면 변기 위에서 반쯤 바지를 벗은 채로 약을 맞다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별로 곱게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아닌지라 이 이야기는 카더라 취급을 받는다. 이런 사례때문에 망가진 록스타의 전형으로 까이기도 한다. 그 밖에도 살빼기위하여 손 댄 게 마약이라는 소문도 있다. 그래서인지 로보캅 2를 보면 그의 사진과 그를 연상케하는 말라빠진 미이라가 잠깐 나오기도 한다. 마약밀매범들이 쾌락과 마약으로 죽은 가수라고 찬양하는 이미지. 그덕에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희생양이기도하다.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관심이 적어 보도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과 영국의 타블로이드들이 그의 사생활에 대해 근거없는 루머를 생산 중이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새로운 사망설이 제기된다. 바로 변비로 인한 죽음이다. 실제로 엘비스 사망 후 부검에서 엄청난 양의 대변이 대장에서 검출되었고 몸무게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유를 근거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곤 할 수 없다. 준이 사망설에 의하면 엘비스는 대변을 보지 못해 힘겨워했고 항상 대변이 마려운 그 상태가 멈추지 않은 상태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주치의는 엘비스에게 항문 이식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엘비스는 연예인 신분인 자신이 항문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일어날 후폭풍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 쌓이는 대변의 독성에 점점 더 중독되었다.

또한 그의 약물 과다 복용[9] 역시 그의 심장마비를 부추겼을수도 있다고 한다. 위에서 나온 주치의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처방은 엘비스를 마약에 손에안 대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준포레스트 터넌트 박사는처방보다 10배 더 투여된 코데인 역시 약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10배에 달하는 코데인 또한 치사량에 미치지 못 한다는 판정이 났다.[

그리고 엘비스의 부검 당시, 많은 약물의 성분이 나온 건 맞지만 그 중에서 불법

성 마약이나 알코올은 일절 나오지 않은 것 역시 주목 할 만한데 이는 엘비스가 말년까지도 마약이나 술에 쩔어 사는 더러운 인물이 아니였음을 증명해주기도 한다.

실제로도 그는 자신에게 엄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생전에도 마약에는 일절 손도 안 댄, 그야말로 겉만 멋지고 잘 생긴게 아닌 그 당시 미국의 방탕한 분위기와 그 분위기를 조장하고 즐기기 바쁜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모습에 반기를 든 마음속까지 멋진 사람이었다. 화려한 비쥬얼과 로큰롤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치를 좋아하고 거만한 스타였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에 성공한 뒤에도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자선단체에 꾸준히 많은 기부를 했으며, 우연히 만난 팬들에게도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대중문화의 중심이 된 후에도 특권을 거부하고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모범적인 군생활을 했으며, 오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관계자들에게도 늘 존중하는 모습과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다보니 그의 춤과 노래를 보며 눈쌀을 찌푸리던 미국의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다 엘비스는 대중음악 사상 최초의 록스타이자 당시 음악계의 주류를 혼자만의 폭발적인 인기로 변화시켜버린 대중음악사의 거인으로 평가받는다.

엘비스의 등장 이전에도 리틀 리처드, 척 베리와 같은 초기 로큰롤 장르를 탄생시키고 활동한 아티스트들도 있었으나 로큰롤 장르를 영미권 대중음악의 주류로 끌어올리고 범세계적인 인기를 처음으로 갖게 한 장본인은 엄연히 엘비스 프레슬리였다. 엘비스가 일으킨 로큰롤 열풍은 스탠다드 팝, 재즈등으로 대표되던 기성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뒤집었으며 본고장인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무수히 많은 '엘비스 키즈'들을 만들어 냈고 그렇게 자란 엘비스 키즈들이 60-70년대 대중음악 시장을 지배한 아티스트들이 되었다.[12]

북미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는 아직도 확고해서 'King of Rock 'n' Roll' 은 그의 별칭이기도 하다. 유럽에선 아직도 생존 가수들보다 더 많은 앨범 판매고를 올리는 등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비틀즈는 엘비스를 보며 로큰롤 뮤지션으로서의 꿈을 키웠다.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역시 60년대 초반까지 척 베리, 리틀 리처드, 버디 홀리와 함께 자신들에게 영향을 준 뮤지션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늘 언급했다. 밥 딜런도 자신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고 ... 여기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흔히 작곡이나 프로듀싱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중음악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냐인 것이다. 60년대의 전설적인 록 스타들이 록의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가장 핫한 로큰롤 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봤기 때문이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로큰롤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우상으로서의 로큰롤 그 자체인'음악을 알려준 스타 혹은 아이돌이기도 했던 엘비스에 대한 경배이자 지지라고 할수 있다. 참고로 엘비스가 최초로 레코드를 녹음했던 스튜디오에 밥 딜런이 와서 엘비스가 서있던 자리를 표시해 둔 흔적에 무릎을 꿇고 키스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마이클 잭슨이 본격적으로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 전에 보는 음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가능성을 보여준 게 엘비스라는 말도 있다. 당시로서는 기성 세대들에게 폄훼를 받은 다리 떨기 등으로 큰 이슈를 끌었다. 한편, 마이클 잭슨은 엘비스에게서 받은 영향력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잠시동안이지만 영향력 대신에 딸을 받긴 했었다.

엘비스가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그의 음악은 흑인음악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백인이 흑인음악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흑백 인종차별이 매우 심하던 시대에 인종의 크로스오버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와는 달리 기독교 힙합이나 록 등의 장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로큰롤이 악마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1960-1970년대에 < He Touched Me > 와 같은 가스펠 앨범들을 발매함으로써 선교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한 가수로도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에서 소위 Megachurch 라 불리우는 대형 교회들이록밴드 또는 기타 대중음악팀을 필수적으로 고용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상당히놀라운 혜안.

은근히 까도 많은 편이여서, 평가 절하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으며 70년대 펑크 록 뮤지션들이 엄청나게 씹어댔다. 이들은 이전 세대인 히피문화부터 구닥다리 로큰 롤까지 모두 척살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더 클래쉬는 그들의 노래 "1977"에서 No Elvis, Beatles or Rolling Stones in 1977이라고 노래했다. 그런데 클래쉬가 위에 언급된 뮤지션들을 싫어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애초에 그들의 앨범 London Calling의 커버 자체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Elvis Presley' 앨범에 대한 오마주였으니까. 커트 코베인은 자신의 기타 케이스에 엘비스의 욕을 적어놓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들과 말년에는 약물 문제로 인해 죽었다는 점에서 당대에는 평론가들에 게도 대차게 까이기도 했지만, 엘비스가 대중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과 그가 남긴 영향력은 지속 돼 현재는 평론가들도 모두 인정한다. 평가는 계속 변하는 것.

•리사 마리 프레슬리 - 딸

1968년생. 명성이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둔 관계로 본인의 실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데뷔 전부터 스타행(..). 때문에 미국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는데, 특히마이클 잭슨과 결혼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네 번 결혼하였는데, 첫 번째 남편은 Danny Keough라는 뮤지션으로 88년에 결혼하여 94년에 이혼하였다. 그와의 관계에서 두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아래에 나올 라일리 키오가 포함되어 있다. 이혼 이후로도 여전히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남편은 다들 알다시피 마이클 잭슨.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조할 것. 리사 마리가 첫남편과 이혼하자마자 마이클 잭슨과 결혼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마이클 잭슨이 언론플레이를 위해 리사 마리와 계약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2년 뒤인 96년에 이혼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세 번째 남편은 니콜라스 케이지. 2002년 결혼했으나 100일 만에 이혼 발표.[16] 이유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

네 번째 남편으로 기타리스트인 마이클 락우드와 2006년 결혼하여 2015년 현재까지도 부부로 함께 하고 있다. 2008년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후 영국으로이주했는데, 2012년에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트럭에서 알바 중이라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160억 짜리 저택에서 사는 여인인 관계로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친구 가게에서 심심풀이 삼아 해봤다는 것(..).

여기까지라면 그냥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전남편들로 유명한 여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니콜라스 케이지와의 이혼 이후 뜬금없이 가수로 데뷔하였다. 2010

년대 이후로도 꾸준히 활동 중. 데뷔 당시는 '갑자기 뭐하는 짓?' 정도의 평가였으나, 이후 아버지 빨을 받은 백만장자의 취미생활은 아닌 것으로 인정받았다.

1998년에 스웨덴에 사는 리사 요한센이 '나, 리사 마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진짜 딸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발표했다. 자서전에는 전세계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로 믿고 있는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가짜라는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1968년 2월 1일 엘비스 아론 프레슬리와 프리실라 앤 불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멤피스에 위치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인 그레이스랜드에서 보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성인이 될 때까지 당분간 피신해 있어야 한다는 엄마에 말에 이름도 세리 로젠퀴스트로 바꾸고 유럽에서 숨어 살았다고 한다. 이유는 요한센이 DNA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한다. 준링크 이 부분은 2015년 9월 6일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준다루었다.

•라일리 키오 - 외손녀

1989년생. 모델 겸 배우. 2010년에 데뷔하였으나, 이후 출연작 중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은 없었던 관계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2015년 개봉된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케이퍼블 역으로 출연, 이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은 덕분에 한국에서도 제법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한편, 매드 맥스 촬영 중 알게 된 스턴트맨과 2014년에 결혼하였다.

•20여년전에 엘비스의 바이오 그라피를 봤을때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태어나자 마자 죽었다는 기록을 본기억이 있음 사실여부 추가 바람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는 역사상 유일하게 2억장의 장벽을 허문 솔로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안타까운점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음악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했을때의 앨범들은 RIAA에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는 역사상 유일하게 2억장의 장벽을 허문 솔로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안타까운점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음악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했을때의 앨범들은 RIAA에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엘비스는 어떠한 뮤지션보다도 더 많은 Gold, Platinum, Multi-Platinum앨범 상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린 솔로 아티스트로도 등극되어 있습니다. 엘비스의 레코드를 담당하는 RCA는 그의 앨범이 약 10억만장 정도 팔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리 많이 팔렸다 해도 6억장은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orld MusIc

제3세계 음악



월드뮤직 World Music

월드 뮤직(World music)은 일반적으로 서양음악과 동양음악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음악 혹은 그곳의 민족음악 혹은 특유의 대중음악도 포함하는 말이다.

민족음악을 이해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은 먼저 그 나라나 그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나 민족, 지역, 또는 하나의 문화가 지켜온 음악 전통이 담겨 있는 월드 뮤직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그 정서적 특징이 만들어진다. 특히 다른 문화에게 정복당한 역사를 경험한 지역의 음악은 그 '한(根)의 정서'로 인해 음악적 공감대을 이루기도 한다.

샹송(Chanson) - 프랑스

샹송 (Chanson Française)은 프랑스어로 '노래', '가요'라는 뜻이다. 현재는 프랑스 가곡이 아닌 현대 프랑스의 대중음악, 주로 서민의 노래를 칭할때 쓰인다. 가사는 하나의 이야기로 된 것이 많고, 쿠플 레라고 하는 스토리 부분과 러프랭이라고 하는 반복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 회화의 알기 쉬운 말이며, 때로는 아르고(곁말) 를 섞기도 한다



Edith Piaf - Non Je Ne Regrette Rien



Dalida, Alain Delon - Paroles, paroles

칸소네(Canzone) -이탈리아

칸소네(이탈리아어: Canzone)라는 말은 한국어로는 '노래'이다. 이탈리아가 예로부터 노래의 나라로 불리고 있듯이, 이탈리아 사람만큼 소리높여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인종도 없을 것이다. 경음악의 분야에서도 기악은 그리 발달하지 않았고, 노래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음악으로 된 노래, 즉 파퓰러송을 보통 칸소네라고 하며 정확하게는 칸소네 파폴라레라 한다. 칸소네는 프랑스에서의 샹송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탈리아의 뜨거운 태양이 길러낸 듯한 활달하고 솔직한 밝음이 있다. 그리고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중음악이라 해도 매우 우수한 음악성을 갖추고 발전해 왔다.



Nicola di Bari - I Giorni Dell'Arcobaleno

3테너 - O Sole Mio

흐미 ι짜 / (Khuumii) - 몽골

흐미는 몽골의 유목민들이 부르는 민요이다.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듯한 창법이다. 즉, 한 번 부를 때 동시에두 개의 소리를 내야한다는 뜻으로 일반인들이 부르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며 난이도 어려운 민요로 악명높은 요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목소리를 내는 듯한 창법은 초원의 바람 소리를 묘사한 것이라 한다.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몽골전통음악 흐미



Buryad traditional song Altargana

요들(Yodel) -스위스

요들은 알프스의 산과 산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때론 소를 부르기 위한 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몇 음만 듣고도 알 수 있듯 이 알프스 의 음악은 자연과 고향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르기 윟

요들은 흉성구에서 두성구로 가는 높낮이가 다른 소리의 반복으로 노래하는 형식으로 의미가 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요들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요들은 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요들송을 합창하는 것은 19세기부터 발전되기 시작했다.

스위스/남독일/오스트리아의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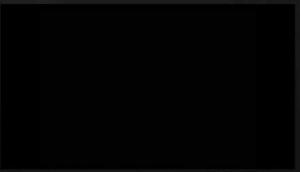
레나 (12살 스위스 요들신동)

파두(fado) -포르투칼

파두 는 포르투갈의 민속음악이다.

주로 검은 옷을 입은 솔로 가수가 부르는 노래 형식이며 포르투칼기타 ,클래식 기타,비올라 어쿠스틱베이스가 반주 악기로 포함 된다. 포르투갈어로 fado는 '운명''숙명'을 뜻하며, 파디스타는 '사무치는 그리움' '외사랑''질투''과거에 대한 향수''삶과 생활의 어려움' 같은 서글픈 감정뿐 아니라 '생생한 삶 이야기' '사랑''일상의 아이러니'그리고 즐거운 감정도 노래한다. 크게 리스본파두와 코임브라 파두로 나뉜다.

2011년 11월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Amalia Rodrigues - Barco negro(검은 돛배)

레게(Reggae) - 자메이카

1960년대 후반 자메이카에서 발전한 음악 장르이다. 자메이카 음악의 한 장르인 스카와 록스테디에서 출발하여 여러 음악 장르의 영향을 받아 발전 하였다. 레게의 음악적 특성은 오프 비트라 불리는 독특한 약박 리듬에 기반한다. 1960년대 후반 자메이카의 록스태디와 스카에서 발전한 레게는 아프리카 음악과 케러비안 음악그리고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레게는이후 자메이카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에 퍼져 유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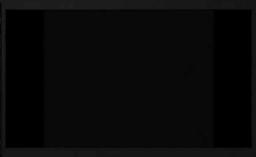


중국음악(中國音樂)

중국 대륙 본토, 특히 한족(漢族) 중심으로 계승되고, 또 오늘날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창작되는 음악을 말한다. 중국음악은 그 이론과 악기 면에서 주변의 여러 나라, 즉 한국·일본·베트남·타이 등의 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 역사의 장구함과 영토의 광대함, 그리고 50여 소수 민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마디로 중국음악이라 해도 그것은 매우 다종다양하나 보통 중국음악이라고 함은 한족의 음악을 말한다.



Tan weiwei - Tibetan Plateau 青藏高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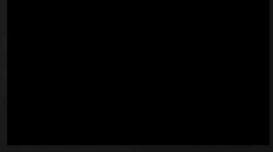
등려군 -월량대표아적심 (月亮代表我的心)

켈틱 음악(Celtic music) -아일랜드

켈트 문화권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콘월, 브르타뉴, 갈리시아에서 불리고, 연주되는 음악을 뜻한다. 잔잔한 선율로 꾸밈음이 많지 않은 단조로운 음들과 포크댄스를 출 것만 같은 경쾌한 선율 등 두 가지의 큰 분류로 나뉜다.



Celtic Woman- Hills of Ireland



Celtic Heart (PBS Special) Kid ar an Sliabh - feat. Harp Twins & Máiréad Nesbitt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_쿠바 (혼혈문화가 빚어낸 걸작)

쿠바에서는 원주민이 일찍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유산은 전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하여 쿠바의 음악은 라틴 음악의 3요소 중 에스파냐계와 흑인계의 두 요소로 합성되어 있다. 흑인 들의 음악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쿠바의 음악에서는 타악기가 즐겨 쓰여 룸바, 맘보, 차차차와 같은 다종다양한 댄스리듬을 낳았 다.(1999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Buena Vista Social Club - Chan Chan

마리아치 -멕시코

 ▶ 멕시코의 어느 지방의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표준 편성의 악단이다. 이것은 칸숀 프란첼라의 반주에 응용되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악기 편성은 보통 기타1-3, 바이올린 2-5, 기타 각종 악기 3-5 정도로, 합계 5명에서 10 여명 정도로 한다. 이 느낌을 미국의 재즈 밴드에 끌어들인 것을 아메리아지라고 한다. 라틴 음악을 형성하는 3개의 요소 중 멕시코에서는 흑인음악의 요소는 거의 볼 수 없으며, 에스파냐계와 인디오(원주민)계의 두 요소가 혼합되어 멕시코의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겠다. 다만 근년 본래의 멕시코 음악 외에 쿠바의 음악(볼레로, 맘보, 자자차 등)이나 미국의 음악(재즈와 록계의 음악)이 계속 들어와서 많이 연주하게 하였다. 본래의 멕시코 음악 중 가장 토착적요소가 강한 것은 손이다. 이것은 보통 지명을 뒤에 붙여 '손 하로쵸', '손 와스테코'라고 하는 각 지방 특유의 민속무용 음악이다.



탱고 (TANGO) -아르헨티나

탱고는 아르헨티나 전체를 대표하는 음악이라기보다 부에노스아 이레스의 음악으로 특수하게 발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르헨 티나 전국에 분포하는 음악은 이른바 폴클로레라고 부르는 것, 즉 민족음악이다.

La Cumparsita

A. Piazzolla - Libertango

삼바(Samba) - 브라질

브라질의 흑인계 댄스 리듬인 samba와 아르헨티나의 백인계 댄스 리듬인 zamba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며, 보통 삼바라 하면 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의 삼바는 본래템포가 빠른 흑인 무용으로서, 쿠바의 룸바와 같이 아프리카 직계의 소박한 것이나, 그것이 도시에 들어와 사교 댄스로 세련되고 다시 슬로우 템포의 가요적인 삼바도 나타나는 등 현재로는극히 다종다양해졌다.

www.lambada.c

Kaoma - Lambada

Bellini - Samba De Janeiro

잉카음악 - 페루(안데스지역)

16세기 신대륙 발견의 선봉에 섰던 스페인에게 찬란했던 잉카 문명을 정복당하고 고난의 역사를 살아야만 했던 인디오들의 슬픔이 짙게 베 어있는 안데스 음악은 지난 세월의 깊은 회한을 머금어 애절하고, 비장 하며, 우수에 가득 차있다. 빠르고, 경쾌한 춤곡들에서 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한의 정서'가 느껴지는 이유도 역시 안데스 인디오들의 고통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기 때문이다.

Inca Son

Guerrero Inca

(Inca Warrior)

By César Villalobos L

Inca Son - Guerrero Inca



El Condor Pasa - Los Incas

러시아 음악

러시아 민요는 넓은 의미에서 본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슬라 브 계열 민족의 민요에서 좁은 의미로는 러시아 내부의 민족민요를 뜻한다. 특징은 발랄라이카와 같은 현악기로 이루어진 노래가 많고, 단조로 이루어 진 노래나 우울한 노래가 많다는 것. 그리고 넓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민족이 뒤엉켜 살다보니 민요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주요 레파토리는 영웅 과 건국설화 민족의 위기였으나 이후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맨스 넘치는 민요도 등장한다.



카츄사 (러시아 민요)



백학(Crane)- 드미트리 흐 보로스토프 스키

인도의 음악

인도의 음악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인도 본토의 음악과 서아시아 및 유럽으로부터 이입되어 혼합된 음악 및 현재 인도에서 생성되고 있는 음악을 말한다. 인도음악은 지역상 동양음악의 한 조류이며 기초 인문학인 음악사학의 연구대상이다. 인도 음악사는 4기로 나눌 수 있다. 바라문 경전인 베다(Veda)를 중심으로 한 베다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시작되고,고전시대는 2세기에서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는 복잡한 이론체계가 전개되고라가(raga)의 개념이 새로 생겼다. 그 다음 중세기는 11세기와 12세기의 회교도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중세기에 북인도(北印度) 음악과 남인도(南印度) 음악이 갈라졌고, 그 다음 근대는 18세기에서 시작되는데, 이 시대에 북인도와 남인도의 음악체계가 고정되었다.발리우드 -





Anoushka Shankar- 'Pancham Se Gara'

Padmaavat Song

World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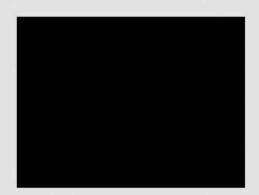


밴드(Band) 란 무엇인가?

- ∘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인 '악단'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영어의 'Band'는록 밴드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관악기와 타악기 위주로 이루어진 브라스 밴드나 보컬로만 이루어진 보컬 밴드, 팝 밴드등 악단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musical group'나 'musical band'나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한국어나 일본어에 외래어로 들어온 '밴드'는 보통 록 밴드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락밴드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보컬그룹 또는 그 룹사운드라고 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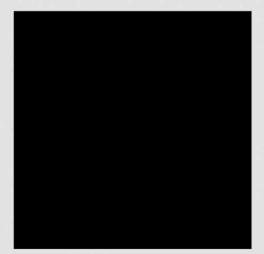
50년대 후반 밴드의 태동기

- ∘ Beatles의 탄생과 더불어 밴드음악과 ROCK음악의 태 동이 시작되다.
- 50년대 밴드로서는 애벌리브라더스.THE COSTERS,BILL HALEY & HIS COMETS, The Andrews Sisters,The Clovers, Jan & Dean, The Diamonds,The Drifters, The Isley Brothers, The Lettermen, The Shadows등 다양한 형태의 밴드가 등장 한다.
- 비틀즈는 1957년 폴매카트니와 존레논이 만나 더쿼리 맨이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결성한다.
- 1962년 10월 5일에 발표된 첫 싱글 "Love Me Do"가 리버풀 팬들의 성원으로 차트 17위에까지 진입하며 성 공적으로 데뷔했다. 다음 해 1월에 발표된 두 번째 싱 글 "Please Please Me"는 마틴의 예상대로 그들의 첫 차트 1위 곡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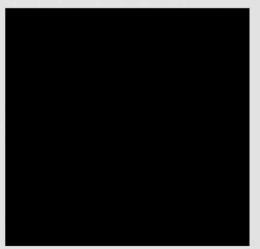


Love Me Do

50년대 밴드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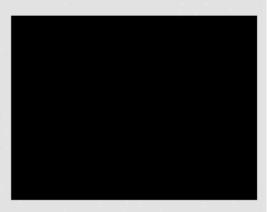
The Platters - Only You (1955)



Benny Goodman - Sing, sing, 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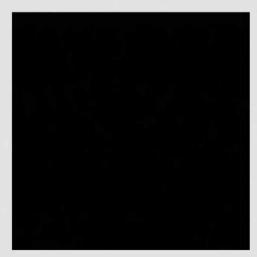
60년대 밴드의 중흥기

- 특히 1964년 2월9일은 비틀즈가 에드설리번쇼 출 연하므로서 미국에 비틀즈를 처음 알린 역사적인 날 이다.
- 한국은 미8군 무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며 조우 커스, 블루즈 테트, 덩키즈,애드포등이 활동하며 밴 도음악의 중흥기가 시작된다. 한편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대중음악 시장은 재편성되며 많은 밴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영국밴드인 애니 멀즈.롤링스톤스,홀리스.킹크스,좀비스,트록스 더 후등이 미국으로 진출을 꾀하며 밴드음악을 세계음 악시장에 주류 음악이 되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리 고 이 사건을 대중음악사에서는 브리티쉬 인베이전 (영국인의 침공)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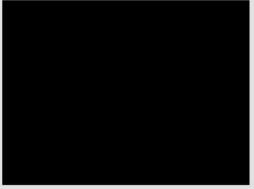


The Animals - The House Of The Rising Sun 1964

60년대 밴드음악



The Box Tops - The Letter (1967)



The Ronettes - Be My Baby

70년대 밴드의 르네상스

- 우리나라는 미8군출신 밴드들이 본격적으로 일반무대로 진출하며 밴드음악의 전성기를 맞이 한다.
- 신중현과 엽전들,키보이스,함중아와 양키스, 데블스,사랑과평화,라스트찬스,영사운드,딕 페밀리등이 활동하며 70년대 대학가요제는 밴드붐을 일으킨다. 샌드페블스,활주로,휘 버스등이 인기를 얻는다.
- 세계 대중음악시장은 락밴드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레드재플린. 딥퍼플. 블랙사베스. 에어로스미스와 퀸, 레너드 스키너드등 거물급밴드들이 대거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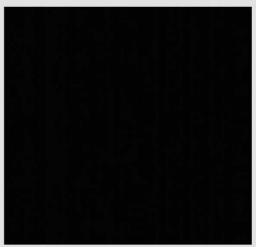


Focus - Hocus Pocus

70년대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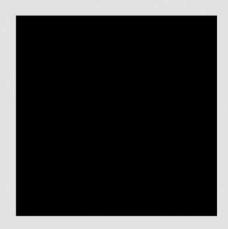
CCR - PROUD MARY(LIVE 1970)



Boney M - Rivers of Babylon (1978)

80년대 밴드의 변신이 시작되다

- 디스코음악의 나오며 락밴드보단 댄스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주목을 받게 된 다.
- 반면 락밴드는 대중적이며 듣기 편안 한 형태의 음악을 하는 소위 말하는 팝 락형태의 밴드가 인기를 얻는다.
- 본조비.신데랄라. 유럽 .익스트림. 건 스 앤 로지스 . 머틀리 크루 . 미스터 빅 스키드 로등이 대표적 이다.



Bee Gees - Stayin' Alive 1989 Live

80년대 밴드 Bon Jovi- Livin' on a Prayer Twisted Sister - We're not gonna take It

90년대 밴드 음악

- 우리나라는 서태지의 등장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가 아닌 춤과 율동을 중요시하는 밴드가 인기를 얻으며 이 후 아이돌 음악의 시발점이 된다.
- 세계음악시장은 기존 음악에 대한 반 기를 들고 나온 얼터네티브가 인기를 얻는다. 대표적인 밴드가 너바나가 있 으며 90년대 주류음악으로 떠오른다.



서태지와 아이들 - '난 알아요'

90년대 밴드



Spice Girls - Wannabe (Live In Istanbul 1997



Nirvana - Smells Like Teen Spirit

2000년대 이후 음악

- ∘ 세계음악시장은 힙합음악이 대세를 이루며 밴드음 악은 예전같은 관심과 인기를 얻지 못한다.
- 우리나라는 대형기획사인 SM.YG.JYP등이 주도하며 본격적인 아이돌음악의 시대로 접어든다.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가 아닌 춤과 율동(군무)이 중요한형태의 음악이 주류가 된다. 이후 이런 대중음악은 K-POP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현재 K-POP은 BTS로최고의 정점에 와 있다 할 수 있다.
-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대한민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보이 그룹이며
- 현재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Wonder Girls - No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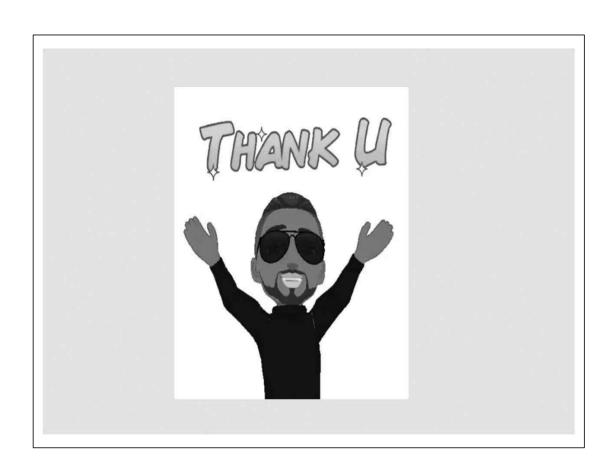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음악



Maroon 5 - This Love Live



BTS - The Voice Live



9차 강의 - 부평평야, 부평문화권의 복원을 기대하며

1. 인천문화, 부평문화

'부평문화'는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 될 요량인데, 굳이 '부평문화'에 권(圈) 자를 달아서 '부평문화권'은 있는가를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이 현재 인천에 남아 있을까 싶다.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평지역인데, '인천문화'도 아니고 '부평문화'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부평이라는 사실은 짐짓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부산, 광주 등 광역시 다음의 구 단위 지역에서 이른바 '금정문화', '광산문화' 따위의 명칭을 들어보지 못한 현실을 살펴본다면 '부평문화'라는 용어가 인천문화터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또렷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학적 문화사적으로도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소지역 문화가 대지역 문화와 나란히 존재함이 기한한 것인데도 인천지역, 아닌 부평지역 문화담론 연구자들이 제대로 이 현상의 근원과 뿌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인천문화와 부평문화가 인천지역에서 나란히 마주서서 부딪히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천을 넘어 간다", "부평 에 넘어 간다"라는 말이 인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온 것에서 인천사람 따로 있고, 부평 사람 따로 있다는 소지역간의 차이점을 분명하 게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전통시대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온 제물포 중심의 인천사람과 땅을 매개로 삶을 살아온 부평(현재, 계양, 서구, 부평, 부천) 사람들과는 처한 환경이 달라서 기질과 정서가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근거로 삶을살아온 사람과 땅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방식은 꽤나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문화 양태도 크게 달랐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 독자적인 문화권역 부평

이러한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또렷하게 공존하는 데가 인천의 부평지역이다. 독자적으로 부평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위적인 행정구 역 개편으로 옛 부평이 서구, 계양, 부평으로 나뉘고, 경기도 부천으로 분리되었지 만, 오랜 세월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기억되고 축적된 문화성까지 강제적으로 쪼갤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만큼 땅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부평지역에 정주하면서 삶을 영위한 것의 축적물로서 독자적인 부평문화가 형성되었기에 부평문화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인천문화에 편입되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현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부천은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무속문화와 삼산농악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부평지역이 서구, 계양, 부평, 부천으로 분할되면서 땅을 기반으로 형성된 무속신앙의 문화와 삼산농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에는 부평평야에 존재해 왔던 저수지 근처에서 간간이 펼쳐진 무속 문화의 명맥도 부평평야가 일제의 조병창 기지로 변화하고, 그 땅에는 다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논농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무속 문화 활동은 그 맥이 완전히 끊기고, 옛 흔적과 기억만이 경기도 부천의 어느 박물관에박제화 되어 있을 뿐이다. 삼산농악도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 양태인데,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광복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기도 버거웠다. 삼산농악의 존재는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한 1990년대 이후부평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에 의해 부평풍물대축제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되었다.

현재 계양구에는 부평도호부와 부평초등학교가 존재할 정도로 부평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던 지역인데, 문화역사적 근거로서 부평이어야 할 장소가 계양이 라는 행정지명을 얹히게 되면서 문화적 불일치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옛 부평에 속했던 지금의 서구지역도 부평평야를 매개로 펼쳐지는 부평문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유완무 선생으로 이어지는 문필활동이 가능하게 된 근거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지금껏 현재의 서구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의 근원과뿌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열쇠를 찾지 못해서 서구 지역사 연구가 협소하거나 진행되지 않은 이유도 '부평문화'라는 근거에서 서구를 바라보지 않은 탓이 가장 큰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곧 서구에 존재해 왔던 문화 활동은 바다를 기반으로는 서구에서 존재해 왔던 문필활동을 가늠할 수 없음을 인류문화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평 평야를 끼고 있는 현재의 경기도 부천에도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주 변영로와 같은 문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터전으로서 부평문화 가 엄연히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부평문화는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부평, 서구, 계양, 부천 지역에서 존재해 왔던 독자적인 문화권역이었다. 현재는 행정구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면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부평문화의 명맥을 유 지하는 것이 버거울 법도 하다. 워낙 그 뿌리가 깊었던 부평문화가 독자적으로 존 재해 왔던 자부심에서 여전히 지금도 부평사람들은 "인천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고, 바다(해양)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천과 부평 평야를 근거로 존재해 온 부평지역이라는 지리 인식을 명확하게 간직하고 있고, 그것에 중요 방점을 찍 고 있었기에 여태껏 부평문화를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부평평야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권 복원 필요성

그런데, 부평문화를 향유해 온 지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네 덩어리(부평, 계양, 서구, 부천)로 분리되면서 부평문화로 불리기가 버겁게 된 현실이 가로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는 서구문화, 계양문화원, 부평문화원, 부천문화원 이름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제도적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부평문화의 뿌리에 다가서는 역사·문화적 행위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더욱 쪼그라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행정 지역이라는 칸막이로 분할하고 있어서 옛 부평이 네 지역으로 쪼개져 오랜 세월 살아온 탓에 다시 '부평문화'로 한데 엮기에는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 다. 그래서 옛 부평문화를 향유했던 지역들을 소지역이라는 형정편의성의 굴레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용어로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평문화권' 사용을 제안 하는 것이다.

부평문화권은 이런 곡절로부터 연유해서 제안한 용어이고, 현재 남아 있는 계양, 서구, 부평, 부천이 지닌 역사문화성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소지역으로 쪼개져 문 화의 독자성마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부평문화를 향유해 온 서구, 계양, 부평, 부천으로 이어지는 문화 벨트를 다시 묶어내는 문화 전략으로서 부평문화의 복원 을 꾀하고자 부평문화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드넓은 '부평평야'를 환기하면 저절로 서구, 계양, 부평, 부천은 문화로서 한 덩어리였음을 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부평문화권' 복원을 이제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과보고서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음악클럽 마을로



Ⅰ. 사업개요

공 간 명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안내소-드립	림보트(DREAM BOAT)	
사 업 명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부평 신촌): 음악클럽 마을로~			
사업기간	2019. 5. 1 ~ 2019. 12. 31	사업장소	부평 신촌 부평대중음악둘레 길 2코스 안내소	
사업목적	○ 부평3동 마을을 '음악클럽 마을'로 리와 먹거리를 조성해서 주말에는 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마을로 되' ○ 부평 신촌(부평3동)은 전국에서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의 ' 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현재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	· 문화관광객들이 살려내어 부평3동 가장 많은 미군 [:] 지위를 획득하는[부평 신촌을 음	항시 찾아와서 대중음악을 즐기 · 마을경제에도 이바지하기 위함. 전용 음악클럽을 보유한 장소로서 데 큰 역할을 담당한 중요한 곳임 악클럽 마을로 재부활시키는 장소	
사 업 추진방법	 ○ 음악감상회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마을 주민과 부평지역사에 관심 있는 부평 구민들) ○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안내소로서 다양한 음악 관련 정보 제공하는 역할과 둘레길 지도 비치하여 안내 역할을 함. 			
추진실적	○ 음악인풍경(문화 프로그램 (○ 표지판 제막 참석 인원: 100 ○ 안내소: 안내소 대중음악 괸 ○ 안내소 음악감상회 정기 개 ○ 예 음악클럽 '드럼보트'을 된 -문화프로그램(9회차), 회의(0여명(11월 30일 난련 표지판 1개 최에 필요한 장 문화 공간으로 적	일) 설치, 안내소 명판 1개 부착 비(음향, 조명 등) 구축 덕극 홍보 활용(21회)	
사업성과	려내는 기회 마련 ○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하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	공식지정안내소 나서, 부일식당 197년대까지 시 I판을 만들어서	사용헸던 드럼보트 간판 모양을 부착함으로써 이 공간이 지닌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5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1강 ○일시: 2019. 5. 27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부평과 배호	5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1강 ○일시: 2019. 5. 27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부평과 배호 	
6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2강○일시: 2019. 6. 10○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대상: 8명○내용: 미8군 출신 가수들	6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2강 ○일시: 2019. 6. 10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8명 ○내용: 미8군 출신 가수들 	
6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3강 ○일시: 2019. 6. 24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1950~1970년대 팝가수들 	6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3강 ○일시: 2019. 6. 24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1950~1970년대 팝가수들 	
7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4강 ○일시: 2019. 7. 15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7명 ○내용: 인천 부평 출신 대중음악인	7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4강 ○일시: 2019. 7. 15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7명 ○내용: 인천 부평 출신 대중음악인	
7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5강 ○일시: 2019. 7. 29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음악감상-마이클 잭슨	7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5강 ○일시: 2019. 7. 29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음악감상-마이클 잭슨	
9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6강 ○일시: 2019. 9. 16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음악감상-에비스 알론 프레 스리	5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6강 ○일시: 2019. 9. 16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음악감상-에비스 알론 프레 스리	

시기	사 업 계 획	시기	추 진 실 적	사유
9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7강 ○일시 : 2019. 9. 30 ○장소 :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 6명 ○내용 : 제3세계 월드 뮤직 편 	9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7강 ○일시: 2019. 9. 30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6명 ○내용: 제3세계 월드 뮤직 편	
9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8강○일시: 2019. 10. 14○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대상: 8명○내용: 비틀즈에서 BTS까지	9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8강○일시: 2019. 10. 14○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대상: 8명○내용: 비틀즈에서 BTS까지	
11월	 □ 표지판 제막식 ○일시: 2019. 11. 1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70명 ○내용: 드럼보트 명판 그림 제막식 	11월	 □ 표지판 제막식 ○일시: 2019. 11. 1 ○장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 ○대상: 70명 ○내용: 드럼보트 명판 그림 제막식 	
12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9강○일시 : 2019. 12. 21○장소 : 복합문화공간 지금○대상 : 8명○내용 : 부평 문화의 가능성과 과제	12월	□ 부평, 한국대중음악 뿌리다-9강○일시: 2019. 12. 21○장소: 복합문화공간 지금○대상: 8명○내용: 부평 문화의 가능성과 과제	

Ⅲ. 사업추진성과

- 음악인풍경(문화 프로그램 9회차)*참여인원(평균 7명)=63명
- 표지판 제막 참석 인원: 100여명(11월 30일)
- 안내소: 안내소 대중음악 관련 표지판 1개 설치, 안내소 명판 1개 부착
- 안내소 음악감상회 정기 개최에 필요한 장비(음향, 조명 등) 구축
- 예 음악클럽 '드럼보트'을 문화 공간으로 적극 홍보 활용(21회) -문화프로그램(9회차), 회의(6차), 음악콘서트(2회), 언론 취재(4회)
- 잊혀져 가는 옛 드림보트 음악클럽이 명성을 부평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내는 기회 마 련
-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가 문화 공간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부일식당 영업에도 도움을 주었음.
- 옛 드럼보트 건물 외벽에 1970년대까지 사용했던 드럼보트 간판 모양을 축소해서 만들어서, 그 밑에 명판을 만들어서 부착함으로써 이 공간이 지닌 역사 문화적 의미를 재인식하는계기를 마련함.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드럼보트 건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천개의 문화오아시스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 천시 전역에 알려내었음.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드럼보트, 현재 부일식당 건물이 워낙 오랜된 건물이고, 1층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이 공간이 문화 사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간 자체에 대한 수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드럼보트,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공식지정안내소가 시민들이 대중음악을 향유하고 그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는 일주일 1회 정기적인 음악 감상회를 마 련하여, 부평이 지닌 대중음악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도록 할 계획임.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

-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안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예산이 좀 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되었으면 함.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고
1	부평대중음악 둘레길2코스 공식지정 안내소 명판	# 15.000	1	아크릴 (부일식당)
2	부평대중음악 둘레길 2코스 드림보트 명판 표착	DREAM GOAT #10.000 #10.000 ATO, AT	1	간판, 스틸 (부일식당)
3	부평대중음악 둘레길2코스 공식지정 안내소		1	배너 (부일식당)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고
4	문화프로그램 안내	THE STATE OF THE S	1	웹자보
5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공간 지정 안내판	TALLE OF THE PROPERTY OF THE P	1	목재 (부일식당 2층)
6	안내소 음향 조명 수리 및 설치	LINY 20	1식	부일식당 2층
7	드림보트 표지판 제막 보도	# # # # # # # # # # # # # # # # # # #	12월 1일자	인천일보
8	결과보고서	- 1988 변화 500는 2년 대한 1980년 1년 1일 2코스	1식	PDF